“시각장애인에 불교 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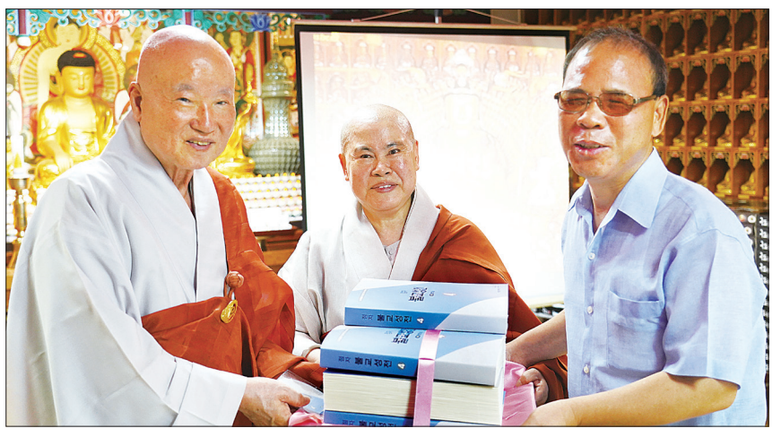
8월 11일, 광림사 연화원 법당서
점자 불교성전·음성녹음CD 전달
“불교 역사적 큰 족적이자 공덕”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장애로 인해 신행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불자를 위한 〈종단본 불교성전〉의 점자책 〈점자 불교성전 제4권〉이 발간돼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은 8월 11일 서울 광림사 법당에서 8월 법회와 함께 점자 불교경전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과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은 강태봉 시각장애인불자회장에게 〈점자 불교성전 4권〉과 경전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CD를 건네며 신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발원했다.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이 강태봉 시각장애인불자회장에게 ‘점자 불교성전 제4권’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점자 불교성전〉은 시각장애인 불자·비불자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귀중한 책”이라며 “불교교리가 가득 담긴 불교성전을 점자책으로 만들기 위해 후원하고 노력해주신 법산 스님, 해성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전달식에 앞선 법회에서 법산 스님은 “지금 4번째로 발간되는 〈점자 불교경전〉은 역사적, 역경(譯經)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며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불교성전〉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공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조계종단 차원에서 장애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점자 불교성전 제4권〉 발행 소감을 묻자 해성 스님은 “점자를 배우며 시각장애인들의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깨달았다. 이들에게 보고 느끼는 감사를 전하고 싶어 〈점자 불교성전〉 간행에 몰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불교성전과 불교계 베스트셀러를 점자화하고 음성 녹음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각장애인 불자 조주영(40) 씨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사찰에 왕래하기 어려웠는데 연화원 광림사에서 점자 경전을 읽는 등 마음 편한 신행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의 원력으로 점자 불교성전, 불교서적을 읽을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연화원 광림사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교리집, 법화경 등 60여 종류의 불교성전 및 불교서적과 오디오북을 제작해 보급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맹인학교에 점자 불교성전을 보급해 시각장애인 중 비불자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귀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불교국가 유학생들 템플스테이로 몸·마음 ‘리플레시’

국제포교사회, 8월 10~11일
국제선센터서 한국불교 소개
사찰 안내 · 요가&명상 등 경험

경쟁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청년 세대 사이에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업에 지친 불교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는 8월 10~11일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불자 유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불교’라는 공통 종교를 가진 불교국가 유학생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고,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템플스테이에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과 국제포교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의 첫 일정은 오리엔테이션과 사찰예절 교육이다.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진과 스님의 지도로 합장과 공양, 절하는 방법 등 사찰 내 올바른 행동과 예절을 배웠다.

2층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긴 후 참배와 사찰 안내가 이어졌다. 불단에 모셔진 비로자나부처님, 노사나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의 특징을 알아보고,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을 관람하며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

스리랑카 출신 하루니(P.W.Hiruni, 32, 서울대) 씨는 “지난해 국제포교사회가 진행한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던 친구가 적극 추천해 참가하게 됐다”며 “불자로서 스리랑카불교와 한국불교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유학생 시나(Heav Sina, 37, 중앙대) 씨도 “같은 불교국가지만 절하는 방법 등 신행 활동은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 전통과 문화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후 3시가 되자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요가&명상’이 시작됐다.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하는데 탁월하다. 참가자들은 법사 진각 스님을 따라 스트레칭을 하며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했다.

전상숙 국제포교사회 다문화부장은 “국제포교사회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며 “경험 많고 다양한 직업군을 갖춘 국제포교사들과 유학생들 간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유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남북 평화·화합 이뤄지는 광복절 되길”

민추본, 8월 14일 발표문
남북 적대, 남북불교 교류 저해
“80주년 광복절, 부처님 앞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남북 평화와 화합을 되새기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민추본은 8월 14일 ‘광복 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며…’ 제하의 발표문을 내고 위태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남북 평화의 서원을 전했다.

민추본은 “남북의 불교도는 매년 8·15 광복절에 동시법회를 개최, 공동발원문을 채택해왔으나 남북관계 갈등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 “남북 동시법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넘어, 다시 한번 남북 평화와 화합을 발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발원문을 발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한 직후 남북이 분단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해방의 기쁨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분단된 채 79년의 시간이 지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민추본은 통일부가 8월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월 말 압록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라고 강조한 민추본은 남북정부에게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 제안에 긍적적으로 호응해주길 바라며, 남한 정부 역시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민간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민추본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 8·15 광복절에는 남북의 불교도가 평화와 간절한 서원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가령 기자

영국에 알린 건강한 여름 사찰음식의 맛

문화사업단 · 주영한국문화원
8월 13~14,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과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문화원)은 8월 13~14일 영국 현지 유명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런던에서 한국 여름 사찰음식 강의를 펼쳤다.

13일에는 르 꼬르동 블루 런던의 채식 조리 전문 과정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조청, 상추비빔밥, 생콩가루 된장국, 가지찜이 시연됐다. 학생들은 법송 스님의 시연을 보고 레시피를 작성하며 사찰음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14일에는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강이 열렸다. 일반인 대상 강의는 일찍 참가 신청이 마감돼, 르 꼬르동 블루 런던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특강이 송출됐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더운 여름날 영국 시민들과 사찰음식으로 삶의 평온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 군승, 최초로 소령 진급

성무호국사 자원 스님 · 호국홍익사 관묵 스님

비구니 군승 중 2명이 최초로 소령에 진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8월 9일 군승 소령 진급자 3명 가운데 2명이 비구니 군승이라고 발표했다. 비구니 군승이 소령에 진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원 스님(군종사관 39기)은 봉선사에서 출가했다. 2017년 7월 1일 중위로 임관, 2018년 12월에 대위로 진급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복무했으며 현재는 공군사관학교에서 부임 중이다.


자원 스님


관묵 스님

해인사에서 출가한 관묵 스님(군종사관 43기)은 2021년 7월 1일 대위로 임관했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제8전투비행단을 거쳐 현재 제3미사일방어여단 호국홍익사에 복무 중이다.

김민재 기자


폴 카가메 대통령


김훈 교수


김혜심 교무


김용택 시인


안선재 수사

제28회 만해평화대상에 폴 카가메 대통령

실천대상에 김훈 · 김혜심
문예대상 김용택 · 안선재
8월 12일 시상식 개최해

2024년 만해평화대상에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수상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최응렬·동국대 교무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로 불린 1994년 제노사이드의 나라 르완다를 응징과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온 정치 지도자다. 르완다는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학살 이후 30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 모범적으로 경제성장까지 이뤄 ‘아프리카 발전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가 됐다. 대학살 이후 이를 빠르게 진압한 그는 국가 통합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끌어냈으며, 2010·2017년 대선에서도 압승하며 지금까지 집권 중이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김훈 인제대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 응급실 당직을 밤낮으로 돌면서, 개도국에 날아가 ‘K 필수 의료’ 노하우를 전하는 일을 17년째 병행하며 국내외 필수 의료 발전에 헌신하는 인물이다.

실천대상 공동 수상자인 원불교 김혜심 교무는 1995년 아프리카 선발대로 남아공을 찾았다가 현지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하고 교육과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현재도 인터넷 무료 전화로 아프리카 현지의 후배 교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김용택 시인은 한국 서정시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절제된 언어로 다정하게 어루만진 지 42년째, 어느 한 쪽에 얽매이지 않는 깨끗한 시로 독자에게 감동을 줬다.

또 다른 문예대상 수상자인 안선재 수사(본명 앤서니 그레이엄 티그)는 테제공동체 소속 수도자이면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를 지낸 영문학자로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쳐온 선구자다.

한편,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신중일 기자

교불련, 대학마다 교수불자회 창립 나선다

8월 9일~11일 강원도 만해마을서
전법위원회 · 캠퍼스 전법단 출범
대학생 전법 교재 보급 계획도



대학생 전법의 교두보가 될 교수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대전대 교수, 이하 교불련) 회장단이 8월 9~11일 2박 3일간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캠퍼스 전법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캠퍼스 전법단 조직 모형 및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교불련은 대학생 전법을 강화하고자 새 학기에 각 대학 캠퍼스 안에 ‘캠퍼스 전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역별 지부마다 캠퍼스 전법단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권역별 전법단과 주요 사찰 전법 조직과의 연계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종단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법에 적합한 전법 교재 선정도 시급하다고 판단, 내부 검토와 의견을 모아 교재 확정 후 보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학생 전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마다 교수불자회를 창립·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수 불자들을 명상 교육이나 사찰 순례에 초대하는 등 인적 교류와 물적 지원을 통해 대학별 교수불자회 창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민재 기자

제16회 나란다축제 학생위원단 발대식

8월 12일 서울 동국대 일원서
“재밌는 불교를 전하고 싶다”



올해 나란다 문화축제를 이끌 학생기획단이 꾸려졌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 이하 은정재단)은 8월 12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6회 나란다축제 학생기획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처장, 신종은 은정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학교별 교법사, 위원학생 38명(남 24명, 여 14명)이 함께 했다.

올해 3기를 맞는 청소년기획위원단은 나란다축제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청소년의 시선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위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나란다축제 기획위원으로서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윤경·김민석 동대부여중 교법사, 김세연 동대부중 교법사, 우수형 동대부고 교법사 등이 학생들의 원활한 기획을 지도한다.

한편, 나란다축제는 8월 30일~31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불교교리 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상월결사 순례체험 △“꿈의 지도” 진학·진로 체험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 △은정전통예술 국악경연대회 △회향한마당 등이 진행된다. 김가령 기자